

로相當한 間隔을 두고 不規則하게 놓여 있다. 그중 마을에 隣接하여 있는 窯址에는 去般 二年間이나 雜人이 多數 出入하여 相當量의 破片을 掘取하였다고 하나 大端한 被害를 입지는 않았다고 보여진다. (魯錫經氏가 忠孝國民學校 申亨模氏의 盡力으로 進行되었다 한다)

忠孝洞一帶가 陶磁器工場과 關聯이 있었던 듯 遺物이 散在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盛時에는 그 規模가 相當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서 採取된 破片群은 前記 魯氏가 相當數 保管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龍文을 象嵌한 花瓶, 蓮華文에 青柳를 細工한 무늬의 瓶도 있고 銘文이 있는 것도 있다고 한다.

여기 실린 사진의 장군도 魯氏 保管品 中の 하나인데 第三窯址에서 出土되었다고 한다. 全面에 큼직한 牡丹文을 놓은 이 장군은 좌우 마구리에 蓮瓣文을 갖고 있다. 數片으로 破損은 되었으나 쪽을 많이 잃지 않아 復元이 可能하다. 採集 携帶해 온 破片 中에는 애벌굽기(초구이)를 한 것에 象嵌을 한 것도 있는데 白土만을 嵌入한 印花文과 點珠文의 鉢도 青磁象嵌의 末期的인 樣式이 나타나 있다.

充分한 期間 調査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窯址가 發見되었다는 程度의 情報만을 整理함에 끝나고 말았으나 出土破片이 高麗象嵌 青磁와 粉青砂器를 同時에 보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研究資料로서는 貴重하다는 印象을 받았다.

附近에서 產出되는 粘土의 質과 窯形을 窺明치 못하였음으로 무어라 斷言하기는 어려우나 이 方向의 專門家가 細密히 現地를 踏查하면 보다 더 重要한 資料가 入手되리라 하고 確信한다.

### 青磁果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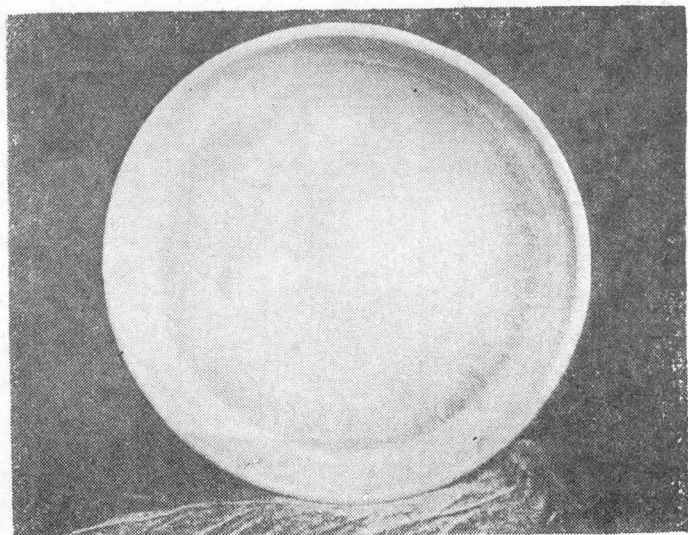
孟 仁 在

一 一種의 大型 鉢이라고도 할 수 있는 甞반인데 흔한 鉢이나 鉢類에서는 찾아

아 볼 수 없는 器形이며 近來 全南地方에서 出來한 것으로 傳한다. 狀況은 알 수 없으나 古墳出土 品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二 側面外觀은 5cm

높이의 뚜렷한 운두가 빙글 돌고 있는 데 운두의 전이나 운두 밑에 불은 바닥(형식적인 굴)의 各 外轉 內轉이 은근해서 S字形에 가까운 曲線을 이루고 있다. 外觀上의 變化는 이 程度일 뿐이나 지름이 一六·五cm라는 그릇의 크기와 운두 上下의 形式은 단번에 가리질 한 것 같지 않은 工程을 말해주는 同時에 自然의 悠然性과 通하는 멋을 들어 내고 있다.



운두面의 釉層은 胎土에 잔잔히 密着한 淺碧(粉青)釉이며 바닥의 그것은 陰刻文樣과 釉裂도 적드러진 多少의 濃淡變化가 있는 透明碧釉이다. 釉調에 가장 큰 變化를 일으킨 곳은 바닥 돌레인데 여기에는 운두와 바닥의 높이는 데서 흘러내린 目測 깊이 〇·三—〇·四cm 以上 二—三cm 넓이의 碧綠釉가 深淵처럼 돌고 있다. 이 碧綠釉는 바로 徐兢이 반했던 「翡色」에 틀림 없을 것이며 陶工의 열인 듯 靑麗하게 凝結되어 있다(同視한 鄭永鎬氏도 筆者와 變갈아 感嘆하였다).

한마디로 해서 還元焰에 의한 燃燒는 充分하다. 바닥에는 中心에 文樣化한 菊輪, 그 四方에는 半開蓮花折枝가 陰刻되어 있다.

밑바닥은 施釉後에 中心部와 그 둘레를 環狀으로 굽어냈으며 이 淡朱色 露胎部分에는 窯內에서 고였던 十三個의 모래받침이 있다. 이 環狀과 等間隔의 모래받침은 整然, 周到하여 偶然이지만 裝飾的效果를 나타내고 있다.

### 三

이 精美한 靑磁는 錢에서 두께가 〇.7cm나 되며 部分에 따라서는 形態가 肉感的인데 운두의 淺碧色 釉調는 故全齋弼氏所藏의 靑磁鴨形硯滴이나 雲鶴梅瓶等과 거의 다름이 없다. 따지고 보면 이들과 같은 釉調는 드문 것이니만큼 年代推定에 最大限 橫的 聯關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後二者도 裝飾 또는 技法上 서로 틀리는 時期로 보기는 하지만 이 果盤은 鴨形硯滴의 時期에 比定해도 좋을 듯하다. 鴨形硯滴은 十二世紀 前半으로 推定되고 있는 듯한데 아무리 멀어진대로 雲鶴梅瓶의 十二世紀 後半——十三世紀初葉以後로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筆者의 記憶으로는 國博所藏 靑磁破片中 康津 龍雲里나 沙堂里 窯址蒐 集品 가운데 이와 같은 釉調의 殘片들이 많았던 듯하다. (全忠信氏 藏)

## 求禮 論谷里的 石造遺物

秦 弘 燮

求禮郡 求禮面 論谷里에 石造遺物 數點이 傳하고 있다. 그 中 石塔은 잘 保存되어 있으나 其他 遺物은 풀에 묻혀 있었고 洞里人들 中에는 그 存在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안대야 큰 關心이 없었다. 이 地帶는 적은 골짜기에 溪水를 境界삼아 求禮郡과 谷城郡이 갈려 있다. 塔이 있는 地點에서 山을 조금 내려와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 谷城 땅으로 들어서면 寺址가 있고 그 附近에서 銅佛一軀가 發見되었다. 이와같이 이 地帶에는 數個의 寺址가 있었으며 이러한 寺院은 新羅時代부터 高麗時代에 걸쳐 있었

던 것이 짐작된다.

### 一、三層石塔

一重基壇의 一般 形石塔으로 下層基壇은 四枚로 構成하고 撐柱로서 二區로 區分되었다. 上層基壇도 四枚로 構成하였으나 撐柱만이 없었다. 上層甲石은 一枚이며 上面에는 十二瓣의 蓮花를 彫刻하여 初層屋身을 받고 있다. 蓮花는 瓣端이 위로 들렸고 中間에 양쪽에서 안으로 내밀린 花瓣이 있으며 中央間地에 또 花形을 두고 있다. 塔身은 三層이 次例로 遞減되었고 屋蓋石 받침은 各各 四段이며 比較的 두꺼워서 落水面의 傾斜는 완만하다. 이러한 點은 一見해서 高麗時代 作品임을 알 수 있다. 三層屋蓋石은 露盤과 한둘로 되었으며 相輪部도 八·一五前까지는 있었으나 그 後 里人들이 賣却한 바 되어 現在는 볼 수 없다. 一部破損된 部分이 있기는 하나 大部分 健在하다. 現在高三·五m

